

월간 **충현**



'76 1월호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성경 / 이사야 60: 1 - 2

김 창 인 목사(당회장)

1976년 정월 초하루를 맞아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는 효자신자가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될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워 잠만 자거나 기지개 쓰며 게으름 피울 때가 아니고, 앉아 말로만 일할 때도 아니고 원수가 무서워 우물쭈물 시간만 보낼 때가 아니라 일어나 일하고 싸워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게을러 편히 누워 잠만 자려는 사람은 남보다 뒤질 수밖에 없으며 준비 없이 원수와 싸우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숨지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부지런히 일하기가 힘들다 그 열매가 귀하고 악마와 싸우는 것이 피로우나 승리 후에 자유가 귀함을 깨달아 잠에서 깨어 하나님만 믿고 일어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빛을 발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영이 잠들어 빛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욕심에 취해 잠들게 됩니다.

남은 죽고 나라는 망해도 나만 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나라에는 저주가 와도 나만 지금 재미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욕심의 뿌리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재물·권세·명예·음란 등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영이 끄덕끄덕 졸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근심에 눌려 잠들게 됩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진찰결과 병명을 듣는 순간 근심에 눌려 그만이야 몸이 죽기 전에 먼저 영혼이 죽어 버립니다. 욕심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 나라에 가야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릴 때 성도는 근심에 눌려 영혼이 잠들 때가 아니라 두 주먹을 불끈쥐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고 근심에 싸여 결국 타락의 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날이 온다 해도 성도는 낙심하여 타락할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전쟁의 소문에 공포와 근심에 눌려 민족양심까지 파는 비열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문 등으로 근심이 일어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때임을 알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양심을 지켜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신자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차이점은, 이처럼 기도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영혼이 살고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살면 욕심도 삽니다. 그러나 근심에 눌리어 믿음

에서 떨어진 자는 기도를 버리고 욕심도 죽기 전에 마음이 녹아져 영혼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잠들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교만한 영혼은 잠들게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권세자가 되었다고 백성을 억울하게 하거나, 명성을 얻었다고 우쭐우쭐 교만해지면 영혼이 잠들게 되어 마귀가 파놓은 불행의 함정에 빠져 받은 바 은혜를 일시에 잃고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내게 재물·건강·권세 등이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미신에 끌려가면 잠들게 됩니다.

진정이든 심심풀이든 미신놀음에 돈 1천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잠들게 됩니다. 요사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점술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입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는 모두가 미신이 성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미신에 속한 사람은 영육이 빼물어져 인격과 모든 것이 잠들게 되고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총현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모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과 교만에서 떠나 참 빛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재물·명예·지식 등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 같은 세상 빛은 악마의 바람 앞에 꺼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부어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 빛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기도·희생으로 빛된 생활 합시다.

하루에 세끼 밥을 먹듯 3장 이상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옷이 땀에 젖도록 전도해야겠습니다. 또 후손들을 위하여 재산의 십일조를 드려 성전을 건축하여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주십니다. 세상 금리와 달리 30배, 60배, 100배를 더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빛나고 우리 교회가 만방의 빛이 되어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고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註) / 지렛상 원문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1월의 행사

- 1 / 신년예배
- 4 / 공동체교회 · 제직회
- 5-17 / 1976년도 단기 수련회
- 11 / 남전도회 총회 속회 · 권사회 총회
- 18 / 교육위원회 · 재정위원회 · 여전도회 월례회
- 19 / 특별 구역권찰회
- 19-21 / 유치 · 유년부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 25 / 구역권찰회 · 전제교사 월례회
- 26-29 / 초등부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 27 / 정기당회

1월호 차례

- 〈설교〉 일어나 빛을 발하라 / 김창인 목사 2
- 〈신학해설〉
-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 / 신성종 목사 4
- 조직신학 서론 / 이정웅 5
- 구역운영의 성경적 의미와 실제 / 백성룡 목사 14
- 〈해의신교〉 선교회장과의 인터뷰 / 취재부 6
- 〈국내전도〉 새신자 육성 / 정기성 목사 10
- 〈주일학교〉 1976년의 전망 / 홍종만 목사 8
- 〈결과보고〉 1976년 단기 수련회 12
- 〈책소개〉 끝없는 가능성 12
- 〈찬송가해설〉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13
- 〈원림〉 저속성 신앙 / 오태용 13
- 〈교회 뉴스〉 16
- 〈구역소식〉 15
- 〈기자석 · 편집후기〉 18
- 〈화보〉 19

권두언

첫 걸음부터 바르게

1976년 1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금년이 작년과 다를게 없고 오월이 어제와 다를게 없다. 지구는 여전히 태양의 주변을 끝없이 돌고 있고 그 결과 춘하추동과 밤과 낮이 계속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새해, 새달, 새날 하고 부른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연속성의 불연속성”이란 말을 했는데, 그 뜻은 끝없는 연속적 시간을 단절하여 불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1976년 새해의 첫 달을 맞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기억해 보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며 꼭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새해에는 무엇을 결심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월을 영어로 재뉴어리(January)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Janus란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은 머리가 앞뒤로 두개 있어서 앞뒤를 동시에 보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Janus란 신의 이름에서 나오게 1월을 뜻하는 January란 말이 나오게 된 동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1월은 앞과 뒤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달이란 말이다. 지난 해를 하나 하나 반성함은 물론이요,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의 열두달을 계획하며 결심하는 달이 바로 1월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의 성도들도 1976년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결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모자랐던 점을 보충하고 잘못했던 점은 계속하면서, 언젠가의 일인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 시간이 늦어 험레벌떡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은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급하다고, 늦었다고 서두르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엔 아무리 질서있게 끼워도 다시 하기 전에는 바로 잡을 수 없듯이 첫 출발은 언제나 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1976년의 첫 출발부터 바르게 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금년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라. 새해엔 중언교회가 것처럼 갈망하는 성전 신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주간〉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

신 성 종 목사

〈부목사·대학부 지도〉

1. 머리말

이적은 종교적 현상이다.

피에테는 파우스트에서 말하기를 “이적은 신앙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부인했다.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적을 부인했으며 석가도 내적 자아의 계시가 아닌 외적 현상으로서의 이적을 부인했다. 모하멧도 근본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시세로(106-43 B.C.)는 과학적 입장에서 “아무것도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적 현상으로서의 이적을 부인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뉴턴의 그릇된 과학관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바로 이점에서 필자는 몇 회에 걸쳐 「예수님의 이적」을 솔직하게 그리고 현대적인 면에서 독자들과 함께 이해 하여 보려고 한다.

2. 이적이란 무엇인가?

이적은 크게 네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1) 무신론적 관점 (2) 현상학적 관점 (3) 합리주의적 관점 (4) 신앙적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1) 무신론적 관점에서 본 이적

무신론자들에게 이적이란 「환상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콘스탄제는 예수님의 이적을 「홍행사의 광고 재주」라고 함으로써 이를 부인했다.

(2)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이적

현상학자들은 이적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를 연구한다. 그래서 여러 이적이야기들의 유사점을 찾아내며 그 자료들을 수집한다. 그들은 이적을 기독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종교의 일반적 현상으로서 받아들인다.

(3)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적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면 스트라우스와 볼트만의 신화적 설명이나 울스튼치럼 우화로 보는 견해나 영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신론(理神論)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무신론자들의 견해와 오십보 백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볼트만의 비신화화 주장인데 그는 이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상황/Sitz im Leben」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견해는 현대에 유행하는 하나의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위험한 병이다.

(4)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이적

이적에 관한 바른 견해는 신앙적 관점에서 본 바에 따라 전개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위의 말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신앙이란 일반적 신앙이나 이교도적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신앙을 말하며, 이적도 일반적 이적이거나 이교도들의 이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사도신경의 첫 단어인 「크레도/Credo」 즉 「우리는 믿는다/We believe」라는 이 고백은 모든 교리의 중심이다. 이런 점에서 이적은 「신앙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볼트만은 그 뜻을 「신앙의 산물」이라는 말로 변질 해석함으로써 신앙의 자녀란 말은 두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이적관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구교의 견해와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견주어 살펴보는게 좋을 줄 안다.

구교의 견해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가장 잘 요약되고 있다. 그는 이적을 여섯가지로 설명한다. ① 하나님만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 ② 이적의 비교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다. ③ 이적과 놀라운 사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④ 이적은 알려진 자연법칙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⑤ 이적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⑥ 하나님은 일반자연 사건가운데서 제 2의 법칙을 통하여 협력하신다.

그러나 어거스틴에 의하여 시작된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구교에서 말하는 두개의 법칙을 말하지 않고 하나의 자연법칙을 말하고 이적은 하나님에 의한 자연법칙의 수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적은 무엇인가?

① 이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이다. ② 계시의 형태인 이적은 현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으나 그 진정한 의미나 성격은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③ 이적은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하나님은 의미 없이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⑤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유·능력·사랑 등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적은 하나님의 직접 역사(役事)로서 그 속에서 새로운 실재를 인류에게 계시하시며 이는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3. 이적과 과학과의 관계

이적과 과학의 관계는 신앙과 과학과의 문제의 일면이다. 이 문제는 지성을 가진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관계를 우리는 고대 뉴턴 이후의 고전시대와 현대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이적과 과학과의 관계」 그리고 「이적과 의학과의 관계」를 살펴 본 후에 「이적의 기능과 의미」 「예수님의 이적의 방법」 「치유이적과 자연이적」 등 신앙성경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조직신학서론

이 정 응

(고등부교사·종신연구원)

오늘날 물론교나 전도관이나 통일교는 모두 잘못된 신학사상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므로 전전한 신학은 보화와 같다.

1.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진리(alétheia)를 신앙으로 배우는 것을 신학이라 한다.

2. 신학은 학문으로 가능한가

‘학’(學)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메(epistémē)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리(alétheia)와 이 세상의 근원(arché)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학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와 우주의 근원을 분명히 말해 주기 때문에 모든 학문중의 학문이다.

3. 신학의 분류

- (1) 역사신학: 기독교회사에 대한 것
- (2) 주경신학: 성경해석학에 관한 것
- (3) 실천신학: 목회, 설교에 관한 것
- (4) 조직신학: 성경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

4. 조직신학의 내용

- (1) 조직신학 서론: 조직신학의 입문
- (2)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 (3)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 (4)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 (5)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 (6)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 (7) 내세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5. 계시

(1) 계시의 뜻

계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Gala)인데 그 뜻은 ‘나타냈다’란 말이다.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인데 이 말은 아포(apó)와 칼립토(kaluptó)의 합성어이니 감추어진 것을 뚜껑을 열어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하나님은 감추어진 천국 비밀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2) 계시의 구분

- ① 일반 계시: 피조물에 나타난 계시
- ② 특별 계시: 성경에 나타난 계시
- ③ 특별계시는 사도들에 의해 완성됨
- ④ 특별계시를 주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코자 함이었다.

6. 성경의 성질

(1) 필연성: 천주교와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무시한다. 천주교는 교회를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고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보다 ‘내적 환상’을 더 중요시 한다. 또한 제세례파(anabaptism)

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죽은 문서」라고 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경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들이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상에 말한 천주교의 입장과 신비주의자들의 견해와 제세례파(이릴때 세례는 무효임으로 성년이 되어 다시 세례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2) 성경자체의 권위성: 성경은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장로교는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권위있는 교회회의에서 신적 권위를 주었다고 한다. 천주교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성경은 66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것은 장로교 입장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 66권 외에 가경(소위 가짜성경)을 더 보탠다. 이것도 잘못이다.

7. 성경의 영감

(1) 영감이란 무엇인가: 영감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 전권에 각 단어와 문자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정확하고 잘못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2) 영감의 방법: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그들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교육이나 신앙이나 용어(用語)나 문체(文體)대로 다 사용하시고 단지 죄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이 감동시켜서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장로교는 믿는다.

(3) 영감의 범위: 장로교는 어떤 일부분 영감이냐 전말의 사상만을 영감으로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문자 하나 하나에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을 소위 ‘완전문자영감’(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라고 한다.

8. 성경의 가치

(1) 문화적 가치: 문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할 수 없다. 영문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한 헬라어(희랍어)를 알아야 한다. 물론 성경의 깊은 진리를 연구하려면 성경 원문을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 어학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 여기 어학이란 말은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말한다.

(2) 윤리적 가치: 성경은 윤리적 가치가 세상에 어떤 법률책보다도 우월하다.

(3) 종교적 가치: 종교적 가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인생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을 주며 행복을 주는 참 서적은 오직 성서밖에 없다.

*주(註): 헬라어 표기는 영어 발음기호로 했고 비스듬히 그은 획은 엑센트요, 가로 그은 선은 장모음표시이다. 예: 알레테이아→한글

αληθεια→헬라어 alétheia→영어 발음표기

해 외 선 교



김 광 철 장로
(선교회 회장)

이때 또다시 일본의 우리 60만 교민들을 위하여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는 현재 한사람을 더 보내야 할 형편으로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은 우리 선교회가 지향하고자 하고 있는 선교회 정책은 '교육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에서 현지인을 교역자로 양성하여 선교활동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사 그 수가 적어 단지 몇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을 양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답 2〕 오는 2월 초순에 인도네시아의 한국선교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본회 서기 최석주 장로, 한경일 장로가 대표로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선교정책에 관한 새로운 계획은 선교관 개관식에 참석한 대표들이 현지답사로 실정을 파악한 후에 그들의 보고를 토대로 실행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대답 3〕 일본은 우리의 인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에서인지 우리는 선교사 파송을 원하지만 일본 당국이 우리 선교사 받아들이기를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선교사를 보내어 60만 우리 교민과 일본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계속하여 일본 선교사 파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 4〕 해외선교 활동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의 활동의 일부를 단지 사진으로 볼 수 있거나 서신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선교활동의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 다섯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는 월례회에 참석하시면 여러가지 보고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어려운 해외선교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정성어린 물질적인 지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선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교사업이 보다 더 활발스럽게 진행되리라 믿어 회장으로서는 이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 7p

□ 선교사님께 드리는 편지 ①

서만수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지난 크리스마스과 설날에 즐겁게 지내셨을 줄 믿어요.

선교사님 1975년을 주님 품 안에서 무사히 잘 지내셨죠. 1976년에도 하시는 주님의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하시는 데 여러가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열려마시고 주님이 기뻐 칭찬하시는 일만이 되세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커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일을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를 선교사님께 새해 선물로 드리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여호수아 1:8-9)

올해도 좋은 복표 아래 주님의 일을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세요.

1976년 1월 7일 이 승 미 올림 <여·중1>

□ 선교사님께 드리는 편지 ②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중등부 3학년 마동훈이라고 해요. 새해를 맞아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새배라도 할텐데, 그럴 수도 없고 편지를 통해서나마 더운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 교회에 나와 평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여러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평강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는 서만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뛰어서 기도로 돕지만 앞으로 우리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려는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처럼 한번 멋있게 선교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마 우리들도 선교사로 세움받을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내외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닿는 데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76년 1월 14일 마 동 훈 올림 <남·중3>

- ① 우리교회 해외복음선교회의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 ②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 ③ 일본 선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 ④ 선교회원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⑤ 해외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p에서

[대답 5] 현재 우리 장로회 총회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서만수 선교사의 선교비 일체를 우리교회가 부담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교회가 초대교회인 안디옥교회와 같이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 계속하여 동남아로 나아가서 세계로 뻗는 세계선교의 꿈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회 단독으로는 막대한 해외선교를 위해 각각의 개교회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해외선교에 힘쓴다면 한국교회의 사명인 『세계선교의 날』은 보다 더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선교회원의 발언

보다구체화된 선교활동을

박 행 렬
(대학부 교사)

선교회원으로서의 보람과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면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다. 구체적으로 선교활동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또 기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활동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 자신이 선뜻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 새해에는 보다 나은 선교활동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어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지 매달 선교회비만 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고 가능하면 문서화 되어 각 회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또한 각 선교회원들이 힘써야 할 것은 기도와 물질로 일선 선교사를 도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곧 선교사라는 자각속에 주일 또는 평소에 늘 전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에 대한 서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 그동안 막연했던 국내외 선교활동이 좀더 구체화되고 따라서 보다 힘있게 될 수 있는 귀중한 체험들을 쌓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

나 개인이, 우리교회가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 ☐ 총회교인은 모두 선교회원입니다. 의무를 다합니다.
- ☐ 서만수 선교사 내외의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 ☐ 일본선교의 문을 속히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 ☐ 장래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한국이 세계를 향한 선교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연구·실천·개선하는 주일학교

홍 중 만 목사

(교육위원장·선교사후보)

사람들이 모여사는 이 땅 위에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관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을 그 지체로 이루게 하신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쳐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여 가르치고 가르쳐 전도하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 총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중에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1954년에 우리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교육기관으로서 「유년주일학교」라는 단일한 기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라고 자라시 이제는 주일학교에 11부나 두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11부의 교육을 위해 현재 13명의 교역자가 전임하여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장소나 시설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장과 지도교역자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각부 교사들의 운영체제는 거의 빈틈 없이 잘 짜여져 힘있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되는 일련

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재정면에서도 당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 교육방법에 있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만 하면 아무런 구애 없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교회 설립 10주년을 기하여 우리교회가 내건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76년을 맞아 이같은 지난날의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발전에 가일층 채색질하여 계속 성장하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올해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기대하고 싶은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연구·실천·개선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목표설정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합니다. 겨우 1년 정도의 주일학교 운영결과를 놓고 성급하게 교육의 성패(成敗)를 따지려는 우매함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뿌린 씨앗의 결과를 알려면 결실의 때인 가을에 가서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결과도 조급히 군다고 하여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인 1년의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도회원이십니까?

사랑하는 총현의 남녀 성도 여러분!

1976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 복음전파에 헌신함으로써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일반 성도는 물론 모든 제직은 의무적으로 남성도는 「남전도회」에 여성도는 「여전도회」에 한사람도 빠짐 없이 가입합시다.

1976년 1월

총현교회 남전도회장 김 기 정
여전도회장 김 봉 재

◇ 새해의 기대·각오·제언 / 정관일 목사

기대 : 뜻밖에 청년부 지도라는 중한 책임을 맡고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청년부에 바라는 바는 구원의 확신에 넘치는 청년부가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청년다운 청년이 되어 우리 총현교회를 청년교회로 변화시키며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각오 :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임을 거듭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 김창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귀한 줄로 압니다. 미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청년들과 벗이 되어 생활을 함께할 각오입니다.

제언 : 숫적으로나 규모면에서 크게 발전해 나가는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조직면에서나 행정면에서 성장속도에 만족할 만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하려면 우리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젊은이 가운데 조직과 행정면에 유능한 실력자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부 지도)

이 1년의 목표는 10년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까지는 각부별로 많은 힘을 키워왔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각부에서 키운 힘들을 정확한 장기적인 목표에 하나로 묶어서 전진해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2. 교육방법의 개선책

절대적인 교육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다 그것대로의 장단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방법만이 절대적인양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잘못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모든 여건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고 개선할점을 놓쳐버리기가 일수입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는 많은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연구와 반성과 자체 평가가 없는 경험은 오히려 그 교육을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교육목표는 영구불변한 것이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은 세대가 변천하여 가는데 뒤지지 않게 부단히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 올해 교육위원회에 기대하는 것

교육위원회의 목적은 「당회가 설정한 교육목표를 주일학교 각부에서 효과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각부의 교육방침을 제시하며 각부활동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올해의 교육위원회 구성개편을 위한 당회의 방침은 아주



□ 새해 포부를 연구·실천·개선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교육위원장 홍종만 목사

발전적인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주일학교 각부의 실정을 잘 알면서 현재 어느 부(部)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도 앞으로 교육위원과 주일학교 임원을 일정기간을 두고 상호 교제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의 목표를 ① 주일학교 행정체제의 확립 ② 주일학교 활동의 분석·평가 ③ 주일학교 각부의 교육활동 지원 등에 두고 실천하여 그 결과가 내년도 우리교회 주일학교 운영방침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새해의 기대·각오·제언/홍화옥

기대: 우선 어리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뛰어들어오며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어 좀 힘차고 활기있는 어린이 주일학교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각오: 지난 1년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과 또 여러 동료 교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남몰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면서 이번 일년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맡은 어린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언: 선배 교사들의 열심 가운데서 배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아부는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밑에 끌리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어머니와 어린이와 교사가 하나가 되어 어머니와 교사가 꼭 같이 귀여운 생명을 맡아 키우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해요. 더우기 처음 나온 어린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부 교사)

◇ 새해의 기대·각오·제언/김종석 장로

기대: 올해 우리 초동부에 기대하고 싶은 바는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모범적인 예배를 어린이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싶다.

각오: 부장을 보라만 해 오다가 부장직을 맡고 보니 무엇인가 압박감과 함께 어리둥절한 느낌도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중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기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동부의 60여명의 교사와 600여명의 학생을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오직 모범적인 생활을 보이는 길 밖에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기도하며 어린이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실체로 보일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제언: 과거 경험을 통해 볼 때에 많은 제직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해 오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기도를 하지 않거나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신 가정의 어린이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면지 하는 것들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는 주일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동부 부장)

새 신 자 육 성



정 기 성 목사
(새신자부 지도)

○ 전도와 새신자육성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 없이 새신자가 있을 수 없고 새신자육성 없이 전도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근래에 많은 전도운동과 전도집회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대전도운동 후에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허탈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결신자보고는 있었는 데 실제로 교인수는 별로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교회에서 매 여름마다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전도운동에서도 그 실례를 들 수 있다. 526명으로 구성된 한 팀의 전도대가 평균 200여명의 결신자를 매해 얻어가고 돌아오나 다음해 현지보고를 들어보면 불과 몇명의 새신자만을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새신자육성에 대한 방안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선생은 전도와 함께 새신자육성을 빼놓지 않았다(행 15:36; 40-41).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전파를 명하실 때 반드시 새신자육성을 포함하시어 말씀하시었다(요 21:15, 마 28:19).

전도와 새신자육성은 마치 아이를 낳는 일과 아이를 기르는 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해 키움받을 권리가 있고, 교회는 새신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방해자들로 부터 보호해주고 시기를 따라 알맞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찰스·피니라는 사람은 새신자육성에 관심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씀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 모르고 있는 어머니와 같아서 안일하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키움으로 그러한 딸들은 아무 짝에도 쓸데 없게 되어 쉽게 나쁜 남자들의 놀이개감이 될 뿐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새신자교육에 등한히 하는 것을 마치 「지휘관이 군인을 모집해 놓고 전혀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새신자육성 문제는 현재 우리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의 큰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침례교회에서 이 새신자훈련과 평신도훈련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가 그 교재들을 그대로 받기에는 교리적으로 좀 빈약한 데가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새신자육성 방안과 교재를 연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1. 새신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야 할 조 각재료와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는 마치 내가 조각하여야 할 재료와 같아서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 재료가 시멘트와 같다면 처음 잘못만든 부분은 정으로 쪼아 수정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처음에 지도를 잘못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첫번 받는 교육은 그 사람의 선입견(先入見)을 이루어 후에 받는 교육을 거절하거나 피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감 없이 순수하고 바르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새신자특징은 가장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때에 잘 배워주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인내로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성교인들은 새신자의 후견인과 인도자의 책임이 있다.

바울선생은 그가 전도한 신자들과의 관계를 유모로서 또한 아버지로써 책임을 가지고 지도했다고 말하였다(살전 2:7-11). 이것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기성교인들은 새신자에 대한 이같은 책임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함 같이 사랑으로 이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 길 인도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고 선봉을 설할 알아야 하겠다(골후 3:9; 딤후 2:7).

3. 새신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① 행동원리를 가르칠 것

사람의 행동은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 감정이 강할 때, 약할 때, 바른 때, 그릇된 때 등 여러가지로 변한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원리는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믿음의 행동원리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 의지적 행동이다. 물론 믿음이 좋으면 감정도 좋고 순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 그 자체에 믿음의 행위의 원리를 두면 결코 안된다.

② 소유권의 올바른 인식을 가르칠 것

사람의 소유의식은 그 사람의 생활신조를 좌우한다. 만일 소유의식이 잘못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도 잘못된다. 그러므로 새신자에게 우리의 재산·시간·재능·육체의 생명 등 모든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이 모든것이 내 것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모든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가 없고 성도의 생활원리인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③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칠 것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첩경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 기도도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④ 신앙의 표준을 그리스도에게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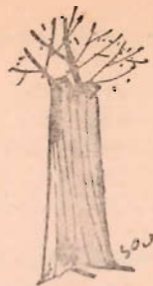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기성교인, 특히 교회 직원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다가 실망도 하고 또 자만하고 해도 그 이상을 자라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망함이 없이 신앙의 선배들 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하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표준인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4. 현재 충현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새신자교육

새신자부에서는 등록된 사람을 맞이하여 그 가운데 기신자로서 전입자는 청년부나 장년부 등 해당 부(部)로 직접 보내고 초신자만 반전성하여 교육한다. 교과과정은 6개월(총 26시간)동안 6권의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전체의 내용을 「믿음에 관한 것」과 「신앙생활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세분해 보면 1권/믿음의 시작—구원의 길을 제시, 2권/믿음의 대상—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권/믿음의 성장—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4권/교회생활—교회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5권/현신의 생활—성도의 일상생활, 6권/승리의 생활—믿는자에게 따르는 유혹과 시험은 어떤 것이며 이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6개월동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학습문답을 거쳐 수료와 함께 우리교회 학습교인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급진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반면에 이단도 많아졌고 성도답지 못한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새신자교육이 올바르게 실시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새신자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교인이 요구되면 필수적 올바른 새신자교육의 시급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 새해의 기대·각오·제언/한경일 장로

기대 : 1975년도에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성실한 봉사로 잘 진행되었지만 1976년도에 좀더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교회 유년부만 하더라도 300명을 넘는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년부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교사 모두가 30분 일찍 교회에 나온다면 교사들 사이에 서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주 안에서 교사 전체가 하나가 된다면 유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교회 주일학교를 견고히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 교사의 자질향상과 신앙성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봉사적인 만큼 개인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일반사회처럼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힘든 일은 먼저 하며 기도로 앞장서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제 자신이 먼저 앞장설 작정입니다.

제언 : 각부별로는 훌륭한데 주일학교 전체가 연관성 있는 전체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등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유년부 부장)

◇ 새해의 기대·각오·제언/정관호

기대 : 충현교회 주일학교가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일관된 목표아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좀더 바라고 싶다면 주일학교 11부가 최일적인 한가지 형태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부별로 특수성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각오 : 제 자신이 대학부 회장으로서 또 그 이전에 주일학생으로서 개인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실패를 가져올 경우 모든 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대학부의 목표가 「젊음을 의의 병기」인 만큼 회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어 학원과 사회에 자기 신앙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보겠습니다.

제언 : 우리교회 주일학교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교육환경여건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소와 시간문제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불편을 느껴오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입생 유치뿐만이 아니라 수업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므로 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대학부 협력회장)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말자」(행 5:42)라는 표어를 걸고 제3회 단기수련회가 지난 1월 5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제 본래도에 올라서려는 단기수련회를 마치고 있어 그 준비 및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다음 수련회에 보탬으로 삼고자 한다.

원래 이러한 단기수련회를 가지는 목적은 연초를 맞으면서 평신도는 물론 장로,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교인이 피교육자로 돌아가 지난 일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반성하고 이제 급년에는 내가 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그것의 효과적 수행을 결심하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가 없는 의의와 목적인만큼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으며, 주관부서인 성경학원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수련회 일정과 강의 제목 및 강사를 선정하여 여유있게 충실한 준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교사수련회의 한 강사가 급한 사정으로 다른 분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충실한 강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총 교과목 27개에 외부 강사는 11명, 내부 강사는 9명이 동원되었는데 13, 14일 이틀간은 전적으로 부흥회만 가졌다는 점이 작년과 달랐다.

이렇게 벌려놓은 잔치에 그러면 얼마만한 성도들이 참가했는가? 맨처음 시작된 교역자·장로 수련회가 첫날엔 51명이 들쭉날쭉 46명이, 제2회 권찰은 3일간에 걸쳐 381/431/274명이 참석하여 40~60%의 참석률

못다한 아쉬움이

—그것을 붙들고 한해 살 수 있게—

을 보였다. 교사, 성가부는 이틀에 걸쳐 284/274명이 참석,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반해 평신도는 123/107명으로 작년에 비해 90여명이 줄었다. 마지막 날의 임원수련회도 작년에 뒤진 75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흥회도 500여명 정도 밖에 참석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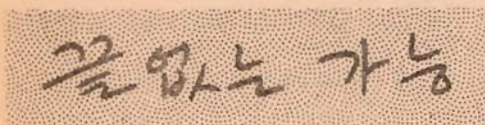
이제 이번의 수련회를 자체 평가함과 동시에 다음 기회에의 제언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참석의 문제인데, 교회의 중추인 제직·권찰의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였다는 점이다(60%).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를 강의 제목까지 상세히 했어야 했다. 유인물에만 의존한다고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흥회가 약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강한 메시지로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아울러 강의와 부흥회를 분리하기보다는 작년처럼 강의 후에 부흥회를 가정으로 새로운 결심을 유도했어야 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교회의 여건상 강사 선정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성가부론 같은 기술적 분야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능한 대외 강사를 초빙했으면 어떨까?

한마디로 연초의 단기수련회는 그것을 붙들고 일년을 살 수 있는 원가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안겨주는 수련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태용 간사>

◀캠페인▶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게 되지 못한다는게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
.....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중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한스 크리스찬/지음 기독교문사 발행
정석홍·홍정수/옮김 4·6판 268면 값750원

과연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가 있는가?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느 정도인가? 이 책의 일부라고 할 「러시아 교회의 현황」을 신성종 목사님이 「중현」지에 소개한 바 있으며,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여러번 북한 선교동 공산세계에의 복음전파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이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 보급을 위한 출판에는 친히 간행위원장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붉은 세계」를 잘 알아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공산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

해서는 그 세계의 진상과 슬픔을 필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에 있었으랴.

이 책은 「대(對)유대 베냐민아크선교부」의 창설자요 현재 그 위원장인 한스 크리스찬 목사님의 고백적 수기로서 귀중한 사진자료까지 제시해 준다. 감명 깊은 것은, 저자는 인간이 스스로 세운 계획과 목적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가를 철저히 밝혀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독자들을 「인간의 진실」에 세차게 몰아세운다. 그리고는 거기서 비로소 그 어두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에, 이 책은 우리들의 문제이자 동시에 해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과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을 감동적으로 대조시킨 신앙의 서(書)이다.

조선근 집사 <「중현」 편집위원>

◇ 내 일생 소원은 늘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원합니다/찬송가해설①◇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새 193·합 147·개 151〉

재림 나팔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런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성도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참여하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그때 거기 참여하겠네

작사자이며 작곡가인 제임스는 작사 작곡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14세의 한 소녀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소녀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었다. 나의 전도와 권면을 받고 그 소녀는 그후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잘 나왔다. 헌신예배를 드리던 어느날이었다. 출석을 부르던 모두가 성경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소녀가 헌신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순간 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더우기 장차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 어린양의 생명록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때 내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제임스는 그날 집에 돌아와 단 15분이 채 못되어 가사를 쓰게되었고 곧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완성했다. 이때가 1893년이었다.

*작사 작곡/제임스 밀튼 블랙 (James Milton Black, 미국 1856년~1938년).

*신앙에서 발행 「찬송가 해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새 일꾼의 소망—신임 성가부장 홍중섭장로

먼저 성가부의 부흥 필요

예배의 일익인 성가부의 책임을 맡게 되어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성가부 자체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성가대원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통한 성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절기마다 교회 연합성가대를 구성하여 찬양을 드리고 가능한 한 관현악과 기타 악기도 동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200자 권점

저축성 신앙

오 태 용

연말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당하면 교회의 안팎으로 부산을 떠는 것이 우리네 경험이다. 주로 불우한 이웃이나 형제를 돕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어떤 교회나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즉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미고 생각해 보면 신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있어 연초부터 목표를 세워 매달 기백원씩 저금을 하고 보우너스 때는 그 끝을 모아 연말에 가서 공짜같이 얻어진 그 상당액으로 우리 이웃에 미만해 있는 불우한 형제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따듯이 해 준다고 하면 이 사회는 훨씬 더 유쾌한 세상이 될 것이고 전도의 문도 넓어질 것이며 그 성도는 보람을 찾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자아껴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절약의 본명은 역시 있을때 아전다는 데 있다. 사나운 맹수는 함부로 힘을 낭비하지 않는 법. 동물이 그럼에야 영장이라는 사람은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우리는 영광 중에서도 뽀핍 받은 크리스찬 때문에 「신앙의 저축」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기에 유사시(rainy day)에 대비해서 신앙을 비축해둬야 한다.

신앙을 저축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한달을 열심히 근로해서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듯 한달을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거기서 얻어진 것을 저축해 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세상 물질의 저축은 꼭 남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저축은 한달을 생활한 신앙 전체가 그대로 저축된다는 점이다. 즉 생활 속에서 대소간의 일에 부딪치며 연단되고 축적된 믿음을 고스란히 신앙잔고에다 넣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한달을 살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쯤엔 그 신앙잔고가 눈사람 만큼이나 커지리라.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다져진 이 신앙이 다음 해로 이월될 때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져보면 현재의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히 읊을 예로 든다. 그러나 읊의 신앙이 탄게 아니다. 그는 햇빛 비칠 때 열심히 신앙의 근로를 하고 그 이삭을 착실히 거두어 모았기에 그토록 가혹한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축성 신앙」으로 부요한 생을 살아보자!



구역운영의 성경적 의미와 실제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1. 조직에 관한 성경적인 배경과 임무

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따라 조직과 제도와 법도를 마련하기도 하며 개혁하기도 한다는 데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여러 조직체는 마치 우리몸의 여러가지 지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직체를 못마땅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경진리에 역행하는 일이다.

구약의 광야교회(행 7:38)는 매우 조직적이었음을 민수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원수와 싸워 선민을 보호·인도하였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전진할 때는 반드시 유다지파를 선두로 하여 질서있게 나아갔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몇개의 조로 편성하여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조직적으로서 활동하지 않은 때는 없다. 그러나 이 조직이란 어디까지나 은혜의 보존수단이며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교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등의 모순점이 없는 것이다.

구역운영은 하나의 조직활동이며 그 조직을 기반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의도하는 바가 잘 전달되고 또 시행되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뜻을 목사에게 알려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권찰회를 통한 구역운영

현재 우리교회 구역편성을 보면 총 2,000세대를 8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490명의 일꾼이 동원되어 구역의 예배·심방·친교·교회활동 등에 모든 구역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구역권찰회의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90명을 직분별로 나누어보면 목사-4명, 여전도사-4명, 장로-26명, 권사-86명, 구역장-84명(권사 또는 여집사 9명, 남집사 75명) 권찰-303명(대부분이 여집사가 겸직)이다.

구역권찰회는 교회의 성경계통과 같아서 교인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권찰의

심방과 아울러 구역단위의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올해부터 「구역운영요원 양성계획」을 마련하여 특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① 우리교회 신정 이해 ② 우리교회 신앙노선 ③ 성경교수법 ④ 성도교제 지도 ⑤ 예배의 모범 등이다.

3. 구역운영의 실무

우리교회 구역운영의 방향은 건전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자라는 교회이다.

1) 건전한 교회란 ① 말씀 선포 ② 권징 ③ 성례전을 바로 시행하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실제 생활에 있어 성경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심방자는 인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성경 읽기와 전도와 주일학교 출석등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성도가운데 성경말씀에 어긋나거나 교회가 정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용납하거나 묵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성례전은 성도교제의 기초이며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든 구역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흠한 교인이 되도록 보살피야 한다.

2) 부흥하는 교회란 이상에서 개인의 건전한 신앙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저력을 확보하고 그 저력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① 말씀에 기초하고 ② 성도를 잘 돌보며(심방) ③ 행정력을 잘 구사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자라는 교회란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여 영력을 키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역자들의 심방과 상담은 대단히 중요하며 장로들의 다스리는 일과 구역장이나 권찰들의 심방결과에 대한 신속한 보고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역장은 구역행정을 공정하고도 융통성 있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구역원들을 잘 통솔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역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역운영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끊임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교인들의 구역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알림◎ 2월 구역공과는 1975년 11월호 충현지에 실린 공과를 사용합니다.

1976년도 구역운영 요강

1. 지역담당 교역자

지역별	전반기(1월~6월)		후반기(7월~12월)	
	목	사	목	사
동 부	김 중 택	강 봉 선	정 상 우	최 순 복
서 부	김 재 창	김 재 일	김 중 택	강 봉 선
남 부	백 성 룡	이 두 탄	김 재 창	김 재 일
북 부	정 상 우	최 순 복	백 성 룡	이 두 탄

※ 1월 19일 현재 총세대수: 2,225호. 교인총수: 남 2,004 여 3,147 계 5,151.

2. 지역별 구역구분 * (신) = 1976년 신설구역

동부지역

- 1) 천호
- 2) 중곡
- 3) 면목
- 4) 회경
- 5) 구이(신)
- 6) 마장
- 7) 옥수
- 8) 청구
- 9) 신당
- 10) 잠실(신)
- 11) 화양
- 12) 태능
- 13) 답십리
- 14) 왕십리
- 15) 군자(신)
- 16) 금호
- 17) 홍인①
- 18) 홍인②
- 19) 쌍림
- 20) 성수
- 21) 동서의

서부지역

- 1) 개봉
- 2) 화곡
- 3) 불광
- 4) 홍제
- 5) 가파
- 6) 신촌
- 7) 효자
- 8) 초동
- 9) 화인
- 10) 충무로
- 11) 문배
- 12) 역촌
- 13) 서대문
- 14) 서교
- 15) 마포
- 16) 종로
- 17) 인현①
- 18) 인현②
- 19) 중부
- 20) 목정
- 21) 용암
- 22) 서서의

남부지역

- 1) 여의도
- 2) 대방
- 3) 봉천
- 4) 상도
- 5) 신길(신)
- 6) 흑석
- 7) 삼성
- 8) 청과
- 9) 용산
- 10) 청담(신)
- 11) 보광
- 12) 한남
- 13) 약수
- 14) 후암(신)
- 15) 강남(신)
- 16) 회현
- 17) 필동①
- 18) 필동②
- 19) 장충①
- 20) 장충②
- 21) 논현(신)
- 22) 남서의

북부지역

- 1) 도봉
- 2) 수유리
- 3) 우이
- 4) 장위
- 5) 창동(신)
- 6) 광희
- 7) 중암
- 8) 월곡
- 9) 삼양①
- 10) 삼양②(신)
- 11) 경능
- 12) 미아리
- 13) 청량리
- 14) 창신
- 15) 송인(신)
- 16) 돈암
- 17) 성북
- 18) 삼선
- 19) 명륜
- 20) 동대문
- 21) 을지
- 22) 북서의

3. 업무 개요

- (1) 특별 권찰회 / 1월 19일
- (2) 구역별 권찰회 / 2월 14일까지 담당장로가 소집함
- (3) 구역별 특별 기도회 / 구역별 권찰회후 2월중 구역장 주관으로
- (4) 구역카드 및 각종 서류 완비 / 구역장
- (5) 월말 보고 / 매월 마지막 금요일 현재로 작성한 것
- (6) 매주 구역심방 / 원사 및 권찰들이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 (7) 구역 예배 / 격주로 금요일밤 실시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 바람
- (8) 노인심방 협력 / 1월~2월
- (9) 대심방 / 3월~6월, 9~12월
- (10) 새신자 육성에 협력 / 원사 및 권찰들이 출석목려와 안내 등
- (11) 각급 신앙문답 대상자 보고 / 3월, 9월
- (12) 신급별인원 일제조사 / 4월, 10월 성례후
- (13) 경로회 참석대상자명단 제출 / 5월중
- (14) 여름 각종 행사를 위한 봉사 / 모금, 시간봉사 등
- (15) 구제대상자 명단제출 / 12월 3일까지
- (16) 성탄 구제금 모금 / 12월 17일까지
- (17) 구역별 혹은 몇개 구역 연합기도회나 친선을 위한 모임 / 구역에서 계획하여 탕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한다.
- (18) 이웃 구역 돕기 / 구역장들의 협의로 경조간 협력한다.

◇구역장 신년소감 / 장봉순 집사 · 마포구역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올해도 또 귀한 구역장 직분을 맡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포구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도 우리 마포구역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구역」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협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몇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역권찰님들이 심방을 나갈 때에는 약속시간에 꼭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정가정을 방문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줄 압니다. 다음은 구역예배 때에는 구역원이 한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장로님들이 면에서 오셔서 애써 준비하신 좋은 말씀을

들려 주시는데 몇몇 사람만 듣기에는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참석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 그대로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구역장 신년소감 / 이신일 집사 · 수유리구역

구역장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지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힘써 일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유리 구역이 작년에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돌린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새해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어서 모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슬픈일, 기쁜일을 당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역 소식

전도위원회 발족

—우리교회 전도활동에 새로운 출발점—

지난 12월 14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우리교회의 국내외전도사업에 있어 새로운 장(章)을 여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새로이 「전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업무내용과 부서별 담당자의 인선을 확정한 일이다.

우리교회 설립 초기부터 우리교회는 전도를 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었고, 부흥된 우리교회는 다시 전도에 주력하는 전도와 교회부흥과의 상관관계를 잘 유지시켜 왔다. 실제 전도활동의 집행부로서 교회 전도부를 비롯하여 남·여전도회, 해외복음선교회 및 주일학교 각부 면려회에서 조직된 전도부들이 각각 제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각각의 이들을 하나로 집약시켜 전도에 있어 우리교회의 총력을 쏟기에는 미흡하였고, 전체를 통괄하여 연구·조정·지휘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인 활동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전도위원회」가 발족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물론 나아가서는 각 지회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향과 전도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분과로 구분된 전도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① 의지분과/외국선교·해외지교회 담당 ② 내지분과/개척전도·학원전도·군전도 담당 ③ 특수분과/교회내 총동원전도운동·방송전도 담당 등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에는 김광철 장로, 부위원장에 김기경 장로, 지도에 정기성 목사 등 모두 13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다.

오늘 선교주일

—교회 전체가 선교주일 행사—

오늘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맞는 「선교주일」이다. 지난해 1월 3째주일에 실시되었던 선교주일 행사와 같이 올해도 범교회적으로 선교주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식 예배와 각부 예배의 설교를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하기로 하였고, 각부에서는 또한 각부대로 선교행사를 실시한다.

특별히 해외복음선교회에서는 선교주일을 맞아 회원 모집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인 모두가 해외복음선교회원이 되어 돌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켜 오늘과 같은 선교주일 행사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특별집회 다시 시작

—오는 2월부터—

모든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연말연시의 교회내 사정으로 인해 12월과 1월에 모이지 않았던 오후 특별집회를 오는 2월부터 또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오후 특별집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뜻에 의해서 지난해 부활절인 3월 30일을 기해서 시작되어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왔다. 시간은 역시 전과 같이 주일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모인다.

교역자 안식년 두기로

—6년 시무에 반년씩—

당회는 지난 12월 2일 우리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교역자 안식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교역자가 6년을 시무하면 6개월의 안식기간을 주

어 쉬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내용인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지난 1971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서만수선교사에게 3개월의 휴가를 주기로 하였다. 파송된 선교사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4년 시무에 1년을 쉬며 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 선교사의 후임이 파송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무장로 증원키로

당회는 올해 시무장로 5명 정도를 더 증원키로 예정하고 오는 4월 노회에 이를 허락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였다. 우리교회 세례교인수에 비해 절대수가 부족(세례교인 30명당 1명이 원칙)한 장로 선출을 위해 성도 여러분께서는 미리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회는 시무장로의 부족을 보완하는 조치로 협동장로제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키로 의논하고 새로이 김영두장로(김영화 권사의 남동생)를 협동장로로 선임하였다.

새로 두 여전도사 전임으로

—김경성·구명신 전도사—

우리교회는 새해에 전임 여전도사 두 분을 모시게 되었다. 새신자부 지도의 임무를 맡은 젊은 교역자 김경성 전도사(1944년생)는 이화여대 법정대학과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대학시절에는 우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서 활약한 바 있다. 또한 김전도사는 본교회 이명달 공로전도사의 외 손녀이기도 하다. 한편 당회는 대학부 부지도 구명신 전도사를 지난 1월 1일부터 전임으로 시무하도록 결정하였다.

—〈1976년 우리교회 성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교육위원회 범교회적 구성

—본래의 기능인 연구·평가·개선 기능 강화—

올해부터 교육위원회 구성원이 범교회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의 교육위원회와는 그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11부 부장 및 지도교역자들로 구성되어 주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 모임을 부장협의회의로 하여 실무자회의 형식으로 바꾸고 교육위원회 구성은 행정·인사·교과·재정·공보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행정적인 처리와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주일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평가·개선 등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발족되어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연구를 전담하였던 교육연구위원회는 이같은 교육위원회에 흡수되어 단일화되었다.

올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종만 목사가 임명되어 선교지인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수고하리라고 하며, 위원은 모두 22명(장로 9명, 목사 4명, 전도사 1명, 집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주에 지교회 설립추진

—올해 시카고 지교회 설립예정—

교회는 현재 우리교회 교인이 약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국에 지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계획은 로스앤젤레스·시카고·뉴욕 등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교회 교인들로부터 수차례 걸친 지교회 설립 요청에 의해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 있는 우리교회 교인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한국선교관 건축비중 미불금액을 위한 모금운동을 펴는 열의까지 보이고 있다.

교회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올해에 시카고 지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는데 앞으로 2년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번째로 공로장로

—김천준 장로님 추대—

당회는 이미 제정된 「공로장로제도」를 보완 정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당회 인사위원회에 위촉하였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공로장로 추대자격과 추대후 매우문제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대로 당회에서 결정하리라고 한다. 이미 우리교회는 장지순 장로님과 오종락 장로님이 공로장로로 추대되었고, 올해도 70세가 되는 김천준 장로님이 공로장로로 추대 받았다. 김장로님은 1953년 우리교회 설립당시 최초 18인 교인중 한분으로 1956년 장로장립 이래 19년 동안 우리교회 시무장로서 우리교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수고를 하시었다.

「충현」지 20면으로 확장

1972년 4월 30일 창간된 이래 줄곧 16페이지로 발행되던 「충현」지가 올해부터 4페이지를 더 늘여 20페이지로 발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표지를 음쇄로 인쇄로 하기로 하였고 내용면에서도 성도의 신앙성장과 교제를 위한 지면을 더 늘였다.

지도자양성부 학생모집

○자 격/충현교회 세배교인

○개 감/2월 8일

○마 감/2월 7일

○접수처/성경학원 사무실

토막소식

*구역권찰회는 1월 19일 저녁 본당에서 특별구역권찰회로 모이였다.

*윤영택 전도사는 총회신학대학의 전임강사로 위촉받아 본교회의 전임을 사임하였다.

*성경학원은 1월 1일부터 최순옥 양(1957년생, 청산여상 졸업)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

*영아부는 오는 2월 29일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연다.

*유치부·유년부는 1월 19-21일 겨울성경학교를 열었다.

*유년부는 오는 2월 1일 반별 찬송부르기대회를 연다.

*유·초등부는 오는 2월 한달을 「어린이 대성방의 달」로 정하고 성방을 실시한다.

*중등부 지도로 윤형철 전도사가 1월 1일 부임하였다.

*중등부는 오는 2월 29일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중·고등부 동기수양회가 오는 2월 26일~28일까지 본당에서 열린다.

*고등부는 오는 2월 29일 고등부실에서 특강을 갖는다.

*새신자부는 자체 교사연수회를 오는 2월 28일 새신자부실에서 갖는다. 강사 정기성 목사.

*대학부는 오는 2월 16일~17일에 아쿠루스 리더회 및 훈련을 갖는다.

*대학부는 제자훈련을 2월 23일~27일 대한수도원과 한일산기도원에서 갖는다. 강사 신정중 목사.

*대학부는 1월 4일부터 집회장소를 별관 4층으로 옮기어 중·고등부와 시차제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부는 동관 지하 1층(신교회 사무실 아래)에 면회회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청년부는 오는 2월 15일 청년부실에서 회원 설교대회를 열며 22일에는 특강을 갖는다.

*청년부는 오는 2월 초에 약 3일간 경기 수원 농아교회에서 부흥회를 연다.

*청년부는 동관 2층(구 대학부실)으로 집회장소를 옮기었다.

*장년새신자부는 동관3층(구 청년부실)으로 집회장소를 옮기었다.

*노년부 부지도로 이두환 전도사가 임명되었다.

기자석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바쁘다. 연초의 계획은 곧 그해 일년동안 걸어야 할 방향표시이기 때문인 것이다.

새해 첫주에 당회장님은 여러가지 부탁의 말씀을 교회 앞에 하시었다. 우선 빌립보 4장 13절을 모두 외워야 한다고 하셨다. 청장년의 회생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도 하시고 또 하루에 한번 이상 성전진축과 해의신교와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 한해동안 우리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힘써 나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형>

◇...교회 식당에서 매주 식사를 하는 인원은 500여명 이상이라고 한다. 교회에 남아 여러가지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마련한 넓지 않은 이 식당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혼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서로 질서와 순서를 지키면 훨씬 덜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무관심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식사한 그릇조차 그대로 상위에 놓아 두고 나가버린다니 질서 있는 생활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귀한 한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안>

◇...무엇에 인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나. 열심으로 인한 나의 맘을 담을 그릇을 찾고 있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는 성구를 수없이 외우면서.....

그 결과 찾았다. 「충현」 편집실이라는 별로 빛나지도, 크지도 않지만 아담한 그릇이, 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별로 빛나지 않는 이 그릇을 해맑은 빛이 날 때까지 닦고 또 닦으리라!

나의 정열로, 나의 맘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에게 무한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함께. <명>

◇...절제와 절약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보여야 할 생활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설물과 소모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낭비의 요소가 너무도 많은 것 같다. 흡사 불황으로 인한 절약시대의 사회에서는 예외로 구별된 지대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느낌이다. <제>

충현교회 기 관 지 월간 충현 조직표 (1976년)

발행인/김창인 편집위원장/위영환
주 간/신성중 편집국장/조신근
편집위원/위영환·조현명·정상우·정관일·신성중
조신근·지급산·이두란·박기현·고경자
간 사/정은표·이형수·오배용
기 자/신재성·안영자·이혜봉

* 사 령(辭令)

명, 「충현」지 기자 정 윤 명

1976년 1월 1일부

편집하고 나서

*...날씨가 차갑다. 편집실이 썰렁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마음만은 훈훈하다. 또다시 주어질 일년이라는 가능성있는 시간적 여유 때문이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제까지의 16년에서 20년으로 증면하게 된 기쁨에서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교회에 감사드릴 뿐이다.

*...1976년은 보다 알찬 내용과 충현의 모든 층의 식구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충현」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다.

지면관계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신학해설면과 구역권찰회소식이 증면되면서 다소 해소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주일학교와 기타 각 지회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다양성있는 편집을 하기에는 제한된 현재의 지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속하여 참고 노력하노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해 볼 작이다. <표>

《표지설명》

1955년 12월 17일 준공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1년동안 우리 충현 성도들의 예배장소로 또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부여된 사명을 다하여 온 우리교회 본당의 모습이다. 솔로몬 성전(왕상 6:8)을 상기하여 설계하였다는 아아치 모양의 자층과 나사모양의 구름다리 층제는 외형적인 특징 이상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새해에는 신앙의 요람으로서의 충현의 제단이 그대로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진 새 성전에서 우리 민족이 산 제사를 드리기를 열망하면서 또 최초의 오프셋 인쇄 표지를 자축하는 뜻에서 우리 교회당 모습을 담아보았다.

월간 「충현」 1월호 · 통권 제25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1월 25일 발행

충현교회 당회조직

1976년 1월 1일 현재

□ 당회장



〈김창인 목사〉

□ 서 기



〈위영환 장로〉

□ 부서기



〈이태규 장로〉

□ 당회원 (가나다 순)



〈김광철 장로〉



〈김기정 장로〉



〈김종석 장로〉



〈김창배 장로〉



〈김한홀 장로〉



〈박창수 장로〉



〈송순일 장로〉



〈신계택 장로〉



〈오승림 장로〉



〈우성원 장로〉



〈윤두한 장로〉



〈윤용규 장로〉



〈윤종성 장로〉



〈윤종순 장로〉



〈이응선 장로〉



〈이창준 장로〉



〈임광식 장로〉



〈전희문 장로〉



〈조현명 장로〉



〈최석주 장로〉



〈한명욱 장로〉



〈한경일 장로〉



〈홍중섭 장로〉



〈황기성 장로〉



〈황창림 장로〉

□ 공로장로



〈강지순 장로〉



〈김천준 장로〉



〈오중락 장로〉



헛된 소망과 자만을 피함에 대하여

사람과 피조물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누구나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세상 사람 보기에 불쌍한 자같이 보이는 일을 수지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만 전적인 신뢰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생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약 4:6)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또 당신의 친구의 명성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자신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고후 10:17)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의 미(美)나 강건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작은 병만 들어도 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상 당신이 가진 모든 자연적 축복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높이지는 마십시오. 그리함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분만은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시 94:11; 요 2:25). 당신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과 달리 사람을 판단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종종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만일 선한 무엇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많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당신은 그저 겸손만을 위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높이는 일은 해로운 일이 되지 않으나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일 때에는 언제나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잠된 평화는 언제나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항상 자만과 질투로 가득차 있을 뿐입니다.